

구약의 악기에 대한 소고와 우리말 번역에 대한 고찰

이성실*

1. 들어가는 말

구약 성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의 이름들이 등장한다. 구약 성서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악기 이름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사한 악기의 이름에 대응이 되도록 번역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의 악기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잊혀지고 중세의 유럽어로 번역될 때에는 유럽인들이 경험한 악기의 이름에 한정이 되어 버렸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성서의 악기들은 20세기에 들어서 고대 이스라엘이 자리했던 지역과 그 인근에서 발굴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을 통하여 새로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중반부터 히브리어 성서에 나타나는 악기의 실체에 대한 규명에서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¹⁾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성서의 원문에 충실히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성서의 악기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좀더 구체적이며 명확한 모습을 찾아내고, 아울러 우리말 번역에서도 새로운 모범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 구약 성경의 악기들

2.1. 킨노르와 네벨

* 한양대학교 졸업, 현재 독일 뮌스터(Münster) 대학에서 음악학을 공부 중.

1) 성서의 악기를 학문적으로 규명한 괄목할 만한 첫 번 때 성과는 1940년에 출판된 Curt Sachs의 저서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로 볼 수 있다.

2.1.1. 킨노르(כִּנּוֹר ; 리라, 기타라)

창4:21, 창31:27, 삼상10:5, 삼상16:16, 삼상16:23, 삼하6:5, 왕상10:12, 대
상13:8, 대상15:16, 대상15:21, 대상15:28, 대상16:5, 대상25:1, 대상25:3, 대
상25:6, 대하5:12, 대하9:11, 대하20:28, 대하29:25, 느12:27, 욥21:12, 욥
30:30, 시33:2, 시43:4, 시49:4, 시57:8, 시71:22, 시81:2, 시92:3, 시98:5(2회),
시108:2, 시137:2, 시147:7, 시149:3, 시150:3, 사5:12, 사16:11, 사23:16, 사
24:8, 사30:32, 겔26:13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과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현악기들의
모습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그 현악기들은 악기의 구조상 모두 리라²⁾에
속하는데 킨노르 역시 리라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킨노르는 대략 기원전
3000년부터 서기 500년경까지 근동 지역에서 폭넓게 쓰인 악기로 판명된
다.³⁾

구약에서 킨노르는 42회 나타난다. 창4:21에 ‘수금과 등소를 잡는 자의
조상’ 유발에 대한 기사가 처음 나오고, 족장들의 시대에서부터 왕국 시대,
포로기 이후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등장한다. 또 성전의 예배에서부터 세속
적인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고대 번역 성서를 살펴보면, 그리스어 칠십인역(Septuaginta)에서는 kithara
(20회), kinura(19회), psalterion(5회), organon(1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번역
되어 있다. kithara는 리라의 일종이고 kinura는 킨노르를 가리키는 셈족의
언어가 그리스어로 표기된 것이다. 라틴어역 불가타(Vulgata)에서는 cithara
(37회), lyra(2회), psalterium(2회), organum (1회)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cithara와 lyra는 모두 리라의 종류이다. 시리아어역 페쉬타(peshita)에서는
36회를 kinora로, 아람어역 타르굼(Targum)에서는 27회를 kinora로 표현하고
있다.⁴⁾

2) 리라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U자 형의 틀 윗 부분에 횡목을 대고 그 횡
목과 아래 부분의 틀에 현을 매거나 받침대에 두 개의 틀을 세우고 그 틀 위에 횡목
을 대고 그 횡목과 아래의 틀에 여러 줄의 현을 맨다. 악기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
체로 들고 탈 수 있는 크기가 많이 보인다.

3) E. Werner, *Die Musik im alten Israel*, from *Neues Handbuch der
Musikwissenschaft Bd.1*, ed by Carl Dahlhaus; Laaber-Verlag, 1989, Wiesbaden, 77쪽.

4) 칠십인역과 불가타, 페쉬타, 타르굼에 번역된 악기 이름에 대한 자료는 A.
Sendrey의 ‘*Musik in Alt-Israel*’에서 인용했다.

고대어 성경에서는 킨노르를 분명히 리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근동 지역에서 리라의 쓰임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고 유럽 지역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리라와 하프⁵⁾가 혼동되기 시작하였다. 제임스왕역(*The King James Versions*, 1611)에서는 킨노르를 모두 하프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왕역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영어개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85), 미국표준역(*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새제임스왕역(*The New King James Version*, 1979/82) 등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영어 번역본에서 킨노르를 하프로 번역하고 있다.

미국 개역표준성서(*The Revised Standard Version*), 미국 새개역표준성서(*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는 대체로 킨노르를 리라로 번역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하프도 사용했고, 새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1973/78)은 대부분 하프로 번역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리라도 쓰고 있다. 이외에 류트, 찰터, 기타라, 찌터 등 다양한 현악기의 이름들이 사용되었다.

2.1.2. 네벨(נֶבֶל; 리라, 기타라)

삼상10:5, 삼하6:5, 왕상10:12, 대상13:8, 대상15:16, 대상15:20, 대상15:28, 대상25:1, 대상25:6, 대하5:12, 대하9:11, 대하20:28, 대하29:25, 느12:27, 시57:8, 시81:2, 시108:2, 시150:3, 사5:12, 사14:11, 암5:23, 암6:5, 대상16:5, 시71:22,

네벨 아소르; 시33:2, 시92:1-3, 시144:9

네벨의 모양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네벨이 현악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Sachs(1940), Sendrey(1969)를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Seidel(1989)까지 많은 음악학자들은 네벨을 하프로 평가했지만⁶⁾,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에서 하프 종류로 생각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네벨이 하프라는 평가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한다. 네벨은 킨노르와 함께 왕국 시대 이전부터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기부터 헬레니즘 시대까지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현악기들은 모두 리라의 형태인 것으로 보아 네벨 역시 킨노르와 유사한

5) 하프는 리라와는 달리 몸체를 가로지르는 횡목을 대지 않고 틀의 한쪽에서 맞은편에 줄을 이어서 손가락이나 골무 혹은 그 외 도구를 이용하여 연주한다. 하프의 틀 형태는 원형이나 삼각형 등 다양하다.

6) MGG 2판 Sachteill, 1521쪽.

리라의 일종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킨노르와 어떤 세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네벨은 킨노르보다 큰 악기로 간주된다.⁷⁾ Bayer의 연구에 따르면 네벨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던 악기이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악기로 평가된다.⁸⁾

네벨은 구약에 모두 28회 나오는데 23회는 킨노르와 짝을 이룬다. 칠십인 역에서는 *nabla*(14회), *psalterion*(8회), *organon*(2회), *kithara*(1회) 등으로 번역했고 불가타에서는 *psalterium*(17회), *lyra*(4회), *nablium*(3회), *cithara*(1회) 등으로 번역했다. *nabla*는 네벨이 그리스어화한 것이고 *psalterion*는 그리스 시대에는 현악기를 가리키는 일반적 명칭이라고 고증된다.⁹⁾ 이 명칭이 불가타역에서 *psalterium*로 나타났고 이 영향으로 대부분의 유럽어 번역 성경에서는 네벨의 번역으로 쉘터를 자주 사용했고, 그 외 리라, 하프, 찌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했다.

2.1.3. 네벨 아소르(נבל אסור)

네벨 아소르는 구약에서 모두 세 번 나온다. 아소르의 어원은 ‘10, 열’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번역 성경들은 이 단어를 현의 수를 나타내는 수식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아소르가 단순히 수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아니라 독립적인 악기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¹⁰⁾ 아직 구체적 모습이 명확히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유럽 번역 성경에서는 아소르를 독립적인 악기 이름으로 보지 않고 네벨의 줄 수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은 시33:2, 시144:9의 네벨 아소르를 아소르를 네벨의 수식으로 보고 번역한 영어 성경의 예이다.

열 줄 악기 an instrument of ten strings(제임스왕역, 새제임스왕역)

열 줄 쉘터 the psaltery of ten strings(미국표준역)

열 줄 리라 the ten-stringed lyre(새국제역, 새미국성서, 새예루살렘성서)

열 줄 하프 a harp of ten strings(새미국표준성서, 미국개역표준성서, 미국

7) A. Sendrey, *Musik in Alt-Israel*, Deutscher Verlag für Musik, Leipzig, 1970, 264쪽.

8) MGG 2판 Sachteil1, 1521쪽.

9) Sendrey, 261쪽.

10) MGG 2판 Sachteil1, 1521쪽. Sendrey, *Musik in Alt-Israel*, 270쪽.

새개역표준성서)

킨노르와 네벨이 자주 짝을 이뤄 나오지만 시92:3처럼 현악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구절은 없다. 시95:3은 다른 두 곳과는 달리 히브리어 본문에서 아소르와 네벨이 서로 두 개의 악기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부분의 번역들은 아소르를 개별적 악기 이름으로 다루고 있다.

시92:3

열 줄 악기, 쉼터 an instrument of ten strings, the psaltery (제임스왕역, 미국표준역)

열 줄 류트, 하프 the ten-stringed lute, the harp(새미국표준성서)

류트 음악, 하프 the music of the lute, the harp(미국개역표준성서, 새개역표준성서)

열 줄 악기, 류트 an instrument of ten strings, the lute(새제임스왕역)

리라, 열 줄 리라 the lyre, the ten-stringed lyre (새예루살렘성서)

그러나 새국제역과 새 미국성서, 개정 루터역, 독일어 공동번역에서는 시 33:2, 시144:9처럼 아소르를 수식어로 보고 네벨 아소르를 하나의 악기로 번역하고 있다.

열 줄 리라 the ten-stringed lyre(새국제역)

열 줄 하프 the ten-stringed harp(새미국성서)

2.1.4. 현악기를 연주하다(יָנַח)

삼상16:18, 삼상18:10과 삼상19:9, 왕하3:15, 사38:20, 합3:19

‘현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은 모두 여섯 곳이다. 개역에서는 두 곳(삼상16:18, 왕하3:15)을 제외한 네 곳에 수금을 넣어서 번역했다. 삼상16:18에서는 악기 이름을 넣지 않고 ‘탈 줄을 알고’로 번역했으며 왕하 3:15에서는 거문고를 넣어 번역하였다. 구약에서 거문고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삼상16:18에 수금을 넣어 ‘수금을 탈 줄을 알고’로 바꾸었고 왕하3:15을 포함하여 다른 곳은 개역과 같다. 공동번역에서는 사 38:20에는 거문고를 넣어 번역하였고 나머지는 수금을 넣어 번역하였다. 표준새번역은 다섯 군데에서 수금을 넣어 번역했고 왕하3:15에는 거문고를 부

가하여 번역했다.

유럽의 번역 성경에서도 악기 이름을 쓰지 않고 ‘연주하다(영어;played, 독일어;spielte, 프랑스어;jouait, 이탈리아서;suonava)’라는 표현만 써서 번역한 성경은 제임스왕역, 독일어 공동번역, 독일어 엘버펠더역, 프랑스어 새제네바역, 이탈리아어 새성경상파울루본 등이고 대부분은 우리말 성경처럼 하프나 리라를 부가하여 번역했다. 새제임스왕역에서는 ‘음악을 연주하다(played music)’라고 번역하였다.

2.1.5. 한국어 성경 속의 킨노르와 네벨

개역과 개역개정판은 킨노르를 42회 모두 수금(豎琴)으로, 네벨은 28회 모두 비파로 번역하였다. 공동번역에서는 킨노르를 비파로, 네벨은 거문고로 번역하였지만 개역만큼 일관적이지 못하다. 여섯 군데에서는 킨노르를 거문고로 번역하였고,¹¹⁾ 시98:5에는 수금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중 한 번은 거문고로 한 번은 수금으로 번역했다. 킨노르를 비파로 네벨을 거문고로 번역했다는 기준으로 보면, 킨노르와 네벨이 같이 나오는 구절 중 세 곳(대하 29:25, 시81:2, 시57:8)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 외 대하5:12에서는 거문고가 아닌 칠현금으로 번역했고, 대상16:5에서는 네벨이 소구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표준새번역에서는 공동번역의 예를 따라 거문고로 번역했지만 왕상10:12에서는 하프로 번역했다.

네벨 아소르가 나오는 세 곳을 살펴보면, 개역은 시33:2과 시144:9을 ‘열 줄 비파’로 시92:3을 십현금과 비파로 번역했고 공동번역에서는 열 줄 비파(시33:2), 열 줄 거문고(시144:9)로, 시92:3은 ‘열 줄 비파’와 거문고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에는 시33:2과 144:9을 ‘열 줄 거문고’, 시92:3은 ‘열 줄 현악기’와 거문고로 번역되었다.

2.2. 우가브와 할릴

2.2.1. 우가브(עוגב ; 파이프¹²⁾, 플루트¹³⁾)

11) 거문고로 번역한 곳 : 창4:21, 욥21:12, 시57:8, 시108:2, 사30:32, 겔26:13.

12) 파이프(pipe)는 리드 없이 입김을 불어넣어 연주하는 대롱 형태의 관악기를 가리킨다.

13) 플루트(flute)는 리드 없이 입김을 불어넣어 연주하는 대롱이나 통 형태의 관악기를 가리키는데, 훈(埴)과 오카리나도 플루트의 종류에 속한다.

창4:21, 욥21:12, 욥30:31, 시150:4

우가브(또는 abub)는 고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을 비롯하여 인근의 근동 지역에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두루 쓰이고 있는 보편적인 관악기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이 악기는 어원이나 모양, 쓰임새는 명확하지 못하다. 악기의 종류가 관악기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명확한 구조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Sachs는 리드가 없이 세로로 부는 긴 관악기로 간주했는데¹⁵⁾ 그 외 많은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¹⁶⁾ 그러나 Sendrey는 우가브를 특정한 형태의 관악기가 아닌, 관악기를 총칭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보았다.¹⁷⁾ 시150:4에서 우가브가 현(絃), 줄을 의미하는 민님과 대구로 나오는데, 이것을 방중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창세기와 욥기에서도 현악기를 대표하는 킨노르와 같이 쓰여 관악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욥기와 시편에서는 타악기를 대표하는 토프, 현악기를 대표하는 킨노르와 같이 쓰여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가브에 대한 번역 또한 현악기들의 경우처럼 일정하지 않은데, 칠십인 역에서는 세 가지(kithara, psalmos, organon)로 번역되어 있고 불가타에는 organum으로만 번역되어 있다. 페쉬타에서도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고, 타르굼에서는 abbuba로 번역되었다. 우가브는 abub로 대체되었고 그 이후로는 abub가 여러 랍비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가브가 금속으로 된 마우스피스나 리드를 꽂아 연주하는 관악기임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¹⁸⁾ 그러나 이 자료에서 우가브(또는 abub)가 특정한 구조의 관악기를 지칭한다 해도 창세기와 욥기 시편에서 쓰인 관악기의 모양이 모두 같거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럽어 성경 중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플루트와 파이프를 번역했는데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번역한 경우는 드물다. 프랑스어 성경 중(루이 세공역, 새제네바역) 샬뤼모(Chalumeaux)¹⁹⁾로 번역한 것이 있고, 독일어 엘버펠터역(1905)에선 샬마이(Schalmei)²⁰⁾로 번역했다.

14) MMG 2판 Sachteil1 1529쪽. Werner, 76쪽.

15) C.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106쪽.

16) Sendrey, 287쪽.

17) Sendrey, 289쪽.

18) And they did not play on a pipe of bronze, but on a reed-pipe, since its sound was sweeter (Mishnah, Arakin, II:4) Sendrey, 영문판 393쪽에서 재인용.

19) 유럽 중세시대의 홀리드 악기로, 클라리넷의 전신.

20) 리드를 쓰는 악기를 가리키는 말.

2.2.2. 할릴(חָלִיל; 오보에, 더블오보에)

삼상10:5, 왕상1:40, 사5:12, 사30:29, 렘48:36

할릴 역시 고대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관악기이다. 여러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보이는 관악기들이 할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리드가 있는 쌍으로 된 관악기이다. 그러나 홀리드인지 겹리드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²¹⁾ 테라코타나 여러 가지 유적, 유물에 새겨진 모습만으로는 겹리드인지 홀리드인지 밝혀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악기 발달 과정을 감안하면 겹리드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약에는 할릴이 다섯 군데에 여섯 번 등장하는데, 축제나 기쁨을 나타내는가 하면 예레미아에서는 정 반대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왕상1:40(en chorois; 춤을 추며)을 제외하고는 aulos로 번역했고 불가타에서는 tibia로 번역했다. 페쉬타에서는 한 번은 생략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잘못 번역하였으며 타르굼에서도 명칭에 혼동을 보이고 있다.

칠십인역에 번역된 aulos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관악기로써 더블오보에에 해당한다. 칠십인역에 aulos로 번역되던 시기에는 할릴이 이와 유사한 악기였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악기의 명칭은 고정되어 있어도 악기의 구조는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서로 다른 시기에 그리고 칠십인역이 번역되는 시기보다 훨씬 오래 전에 기록된 구약의 문서에 쓰인 할릴이 aulos와 구조가 유사한 악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삼상과 왕상의 시대적 배경은 서로 가까운 만큼 할릴이 동일한 악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기록된 시기와 배경이 다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할릴은 이전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가브와 마찬가지로 플루트와 파이프를 일관성 없이 번역했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성경에서도 플루트와 파이프를 섞어서 번역했다.

2.2.3. 한국어 성경 속의 우가브와 할릴

우가브는 구약에 네 번 등장한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통소(창4:21, 시150:4)와 피리(욥21:12, 욥30:30)로 번역되었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서는 창4:21만 통소로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피리로 번역되었다.

21) 홀리드 관악기는 클라리넷에 속하고, 겹리드 관악기는 오보에에 속한다.

할릴은 모두 다섯 군데에서 여섯 번 등장하는데 피리(왕상1:40, 렘48:36에 2회)와 저(삼상10:5, 사5:12, 사30:29)로 번역되었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서는 모두 피리로 번역되었고 개역개정판에서는 삼상10:5을 제외하고 모두 피리로 바꾸었다.

2.3. 하초츠라와 쇼파르

2.3.1. 하초츠라(חֲצוֹצְרָה; 트럼펫²²⁾)

민10:2, 민10:8, 민10:9, 민10:10, 민31:6, 왕하11:14, 왕하12:14, 대상13:8, 대상15:24, 대상15:28, 대상16:6, 대상16:42, 대하5:12(3회), 대하5:13, 대하13:12, 대하13:14, 대하15:14, 대하20:28, 대하23:13(2회), 대하29:26, 대하29:27, 대하29:28, 스3:10, 느12:35, 느12:41, 시98:6, 호5:8

하초츠라는 구약에서 축제, 군중의 소집, 각종 제의 등에서 폭넓게 쓰인다. 또한 성전의 중요한 악기이며 제사장의 악기로써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초츠라는 금속으로 만든 나팔로 만드는 방법이 유일하게 구약 본문에(민10:2) 나와 있다. 이런 종류의 금속 나팔, 즉 트럼펫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 유물과 유적들을 통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칠십인역은 스물 일곱 군데를 *salpinx*(트럼펫에 해당하는 악기)로 번역했고 한 군데(대하5:13)를 누락시켰다. 쇼파르와 하초츠라가 함께 등장하는 호5:8에서는 하나의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salpitate salpingi*; 트럼펫을 불다). 불가타 역에는 스물 일곱 군데에서 *tuba*로 번역하였고 두 군데에서는 잘못 번역했다. 유럽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초츠라와 쇼파르를 구분하지 않고 트럼펫으로 번역하고 있다.

2.3.2. 쇼파르, 쇼파르 하요벨(שׁוֹפָר הַיּוֹבֵל, שׁוֹפָר; 호른²³⁾)

출19:16, 출19:19, 출20:18, 레25:9, 수6:4, 수6:5, 수6:8, 수6:9, 수6:13, 수6:16, 수6:20, 삿3:27, 삿6:34, 삿7:8, 삿7:16, 삿7:18, 삿7:19, 삿7:20, 삿7:22, 삼상13:3, 삼하2:28, 삼하6:15, 삼하15:10, 삼하18:16, 삼하20:1, 삼하20:22, 왕상1:34, 왕상1:39, 왕상1:41, 왕하9:13, 대상15:28, 대하15:14, 느4:18, 느

22) 트럼펫(trumpet)은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를 가리킨다.

23) 호른(horn)은 짐승의 뿔로 만든 관악기를 가리킨다.

4:20, 욥39:24, 욥39:25, 시47:5, 사81:3, 시98:6, 시150:3, 사18:3, 사27:13, 사58:1, 렘4:5, 렘4:19, 렘4:21, 렘6:1, 렘6:17, 렘42:14, 렘51:27, 겔33:3, 겔33:4, 겔33:5, 겔33:6, 호5:8, 호8:1, 율2:1, 율2:15, 암2:2, 암3:6, 습1:16, 습9:14

쇼파르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기이며 오늘날까지 외형의 변화 없이 유대교의 제의에 사용되는 유일한 악기이다. 또한 어느 악기보다 쇼파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쇼파르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고 이 악기의 쓰임이나 용도 등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는 편이다. 쇼파르는 숫양이나 숫염소 같은 동물의 뿔로 만든다.

쇼파르가 나오는 곳은 모두 예순 여섯 곳이지만 고대역이나 유럽의 번역 성서에서는 하초츠라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번역하고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마흔 두 군데를 *salpinx*로 스물 다섯 군데를 *keratine*(호른에 해당하는 악기)로 번역했다. 한 군데는 누락되었고 네 군데에서는 오역을 했다. 불가타에서는 서른 여덟 군데를 *buccina*로 스물 아홉 군데를 *tuba*로 번역했으며 시98:6에서는 하초츠라와 쇼파르를 *tuba cornea*로 함께 묶어 번역을 했고, 네 군데는 누락이 되었다. 그 외 타르굼에서는 예순 세 군데를 *schofara*로 세 군데를 *karna*로 번역했고 한 군데는 누락되었으며 페쉬타에서도 *karna*와 *schifura*란 명칭을 썼는데 지속적으로 혼동하여 사용하였다.

모세 오경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하초츠라와 동물의 뿔로 만든 쇼파르를 구분해서 쓰고 있지만 점차 하초츠라와 쇼파르의 구분이 줄어들면서 하초츠라보다는 쇼파르가 더 자주 쓰이기 시작한다.

2.3.3. 케렌 하요벨(קֶרֶן הַיּוֹבֵל; 호른)

수6:5

케렌 하요벨은 한 번 등장하는데 쇼파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보인다.²⁴⁾ 보통 숫양의 뿔로 해석하는데, 케렌은 특정한 악기의 이름이 아니라 동물의 단단한 부분 즉 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구절에서는 악기의 이름으로 쓰였다.

2.3.4. 한국어 성경 속의 하초츠라와 쇼파르

24) Sendrey, 228쪽.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트럼펫에 해당하는 나팔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네 곳에서는 하초츠라와 쇼파르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 경우에 용어 선택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이 네 군데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민 10:2의 하초츠라는 은이란 재료가 본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은나팔로 번역했고 그 외의 하초츠라는 모두 나팔로 번역했다. 쇼파르의 경우도 대부분 나팔로 번역했는데, 왕상1:34, 39, 41에서는 양각으로 번역했고 쇼파르 하요벨림이란 표현이 나오는 수6:4-8에서는 ‘양각 나팔’로 번역했다.

공동번역에서는 좀 더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사6:34, 7:8, 7:16, 미 1:11 등 네 곳에서 뿔피리로 번역했고, 대하13:12, 렘42:12, 호8:1, 암3:6 등 네 곳에서는 ‘비상 나팔’로 번역했다

구약에서 하초츠라와 쇼파르가 동시에 나오는 곳은 모두 네 곳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금속으로 된 하소르라와 뿔로 된 쇼파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나팔로 번역을 했는데, 동시에 등장하는 곳에서 사용된 명칭들은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판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대상15:18	쇼파르	각	뿔나팔	뿔나팔
	하초츠라	나팔	새납	나팔
대하15:14	하초츠라	피리	쇠나팔	쇠나팔
	쇼파르	나팔	뿔나팔	뿔나팔
시98:6	하초츠라	나팔	은나팔	나팔
	쇼파르	호각	뿔나팔	뿔나팔
호5:8	쇼파르	나팔	뿔나팔	나팔
	하초츠라	호각	은나팔	비상 나팔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 대하15:14의 하초츠라를 피리로 번역했는데 하초츠라나 쇼파르를 피리로 번역한 곳은 이곳 뿐이다. 개역에서는 피리를 목관 악기인 우가브와 할릴의 번역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금속으로 된 나팔의 번역 용어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그 외에 각과 호각이 한 번씩 쓰였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명칭이 쓰이지 않았다. 공동번역에서는 은나팔이란 용어를 두 번 썼는데, 고대어 성경이나 유럽어 성경에서 ‘은’이란 재료의 명칭을 넣어서 번역한 예는 없다. 대상15:18에서 뿔나팔과 새납을 쌍으로 사용했는데, 오보에 종류에 속하는 관악기 새납을 하초츠라에 대응하여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2.4. 토프(תוף; 트롬멜, 탬버린)

창31:27, 출15:20, 삿11:34, 삼상10:5, 삼상18:6, 삼하6:5, 대상13:8, 욥21:12, 시68:25, 시81:2, 시149:3, 시150:4, 사5:12, 사24:8, 사30:32, 렘31:4

토프는 여인들이 손에 들고 춤을 출 때 쓰이는 타악기로 알려져 있다. 이미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들을 통해 충분히 고증되어 토프의 대략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다. 또 구약에 기록을 통해 사용법, 용도 등이 잘 드러나 있다.

토프의 지름은 25-30cm 정도로 탬버린과 유사하지만 둘레에 장식이 없고 손잡이가 달리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타악기이다. 재료는 나무로 만들고 모양은 대체로 둥글지만 삼각이나 사각 형태의 것들도 발견된다. 구약에서는 16군데에서 토프가 등장한다. 칠십인역에서는 *timpanon*으로, 불가타에서는 *tympanum*으로 번역하였는데, 유럽어 성경에서는 트롬멜이나 탬버린으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열다섯 군데를 소고로 번역했고 창31:27은 북으로 번역했다. 공동번역에서는 열세 군데에서 소구로 번역했고 시149:3, 시150:4, 사30:32에서는 북으로 번역했다. 새번역은 창31:27만 북으로 번역했고 나머지는 모두 소구로 번역했다. 공동번역의 대상16:5에도 소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오역으로써 히브리어 성서에 나오는 이름은 현악기인 킨노르이다.

2.5. 메칠타임과 첼첼림(מִצְלֵיטַיִם, מִצְלֵיטַיִם; 심벌즈cymbals)

메칠타임 대상13:8, 대상15:16, 대상15:19, 대상15:28, 대상16:5, 대상16:42, 대상25:1, 대상25:6, 대하5:12, 대하5:13, 대하29:25, 에스라3:10, 느12:27

첼첼림 삼하6:5, 시150:5(2회)

메칠타임과 첼첼림이 심벌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고대어 번역 성서에서도 명칭상의 혼동이 없고 고고학적 증거도 충분한 편이다. 삼상6:5에서 보인 첼첼림이 평행구인 대상13:8에서는 메칠타임으로 교체되었다. 그 외 첼첼림은 시150:5에서 다시 등장하지만 첼첼림과 메칠타임은 거의 유

사한 타악기로써 메칠타임이란 용어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메칠타임과 첼첼림은 동의어인지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악기에 해당하는 발굴품은 대체로 풍부한 편이어서 형태를 고증하기는 어렵지 않다. 발굴된 심벌즈는 지름 3-6cm 짜리와 지름 7-12cm 짜리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며 고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kimbalon으로 불가타에서는 cymbala로 번역하고 있는데 모두 심벌즈를 가리키는 말이며 대부분의 유럽 번역 성서에서도 심벌즈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두 가지 악기를 모두 제금으로 번역했고 대상 15:19만 늦제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역의 국한문 혼용 성경에서 ‘제금(提琴)’의 한자어가 모두 잘못되었는데, ‘제금(提金)’이 올바르다. 공동번역에서는 대부분 바라로 번역했지만 시150:5에 나오는 두 번의 첼첼림을 한 번은 자바라, 한 번은 징으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은 대부분을 심벌즈로 번역했고 스3:10은 자바라로 시150:5는 두 번 다 제금으로 번역했다.

2.6. 파아몬(קַמָּוֹן; 시스트럼²⁵, 래틀)

출28:34, 출28:35, 출39:25, 출39:26

파아몬은 출애굽기의 두 곳에 나오는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중에 나온다. 이 소리 나는 금속 기구는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쓰이고 있다. 파아몬은 고고학적 발굴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반구 형태의 방울, 작은 종이다. 칠십인역에서는 kobon으로 불가타에서 tintinnabulum이라고 번역했는데, 소리나는 작은 물건이란 뜻으로 방울, 종이란 뜻인데 반원이나 반구 형태의 딸랑이를 가리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네 가지 번역 모두 출28:33,24은 금방울로 출39:25,26은 방울로 번역했다.

2.7. 메나아님(מְנַאֲנִים; 시스트럼, 래틀)

삼하6:5

메나아님은 구약에 한 번 등장하는데, ‘흔들다’라는 어원을 지녔고 복수로

25) 시스트럼은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악기로, 손잡이가 달린 딸랑이, 요령이다.

쓰였다. 칠십인역에서는 kimbalon으로 불가타에서는 sistra로 번역되었는데, 모두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도구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도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시스트럼(요령, 방울), 진흙 래틀, 뼈로 만든 래틀, 금속 래틀 등으로 엇갈린다.²⁶⁾ 오늘날까지 상당수의 흔들어 소리 내는 기구를 발굴했지만, 그 중 어느 것이 구약의 이 기구와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양금으로 잘못 번역했고 공동번역에서는 땡땡이, 표준새번역에서는 썩과리로 번역하고 있다. 양금은 울림판 위에 철사줄을 매고 채로 치는 현악이고 땡땡이는 종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다. 썩과리는 오목한 철판을 쳐서 소리 내는 타악기이다.

2.8. 아체 브로쉽(עֵצֵי בְרוּשִׁים;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삼하6:5

이 표현은 삼상6:5에 한 번 등장하는데 복수 형태로 쓰였다. 일반적인 의미는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이란 뜻이다. 이 표현을 구체적인 악기로 간주하여 번역한 성경은 없지만 음악학자들은 대체로 잣나무로 만든 딱딱이(케스터네츠)로 이해하고 있다.²⁷⁾ 삼하6:5의 평행구인 대상13:8에서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라는 구절로 대체되어 있다. 여러 유럽어 성경들은 삼상6:5을 평행구인 대상13:8의 예를 따라 대체하여 번역했고,²⁸⁾ 우리말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그 예를 따르고 있다.

개역, 개역개정판과 표준새번역은 각기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로 번역하였다.

2.9. 샬리쉬(שָׁלִישׁ, 3)

삼상18:6

샬리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악기 이름으로 쓰인 곳은 삼상18:6 뿐이다.

26) MGG 2판 Sachteil1, 1517쪽.

27) MGG 2판 Sachteil1, 1513쪽.

28) 새국제역, 개역표준성서, 새미국성서, 새제임스왕역, 새예루살렘성서, 루터역, 독일어 공동번역, 솔라흐터역, 프랑스 예루살렘성서, 새성경 상파울로본 등이 이 예에 속한다.

살리쉬는 ‘3’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에 따라 살리쉬가 가리키는 악기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가지가 셋인 시스트럼으로 가정할 수 있고 그 외 현이 세 줄인 현악기(킨노르 혹은 네벨), 트라이앵글, 삼각 모양의 킨노르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라서 유럽의 성경들도 막연히 악기, 현악기, 쳐서 소리 내는 악기, 흔들어 소리 내는 악기 등 매우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1) 악기들(instrument of music, musical instruments)로 번역한 성서들

영어: 제임스왕역, 새국제역, 새미국표준성서, 새개역표준성서, 미국표준역
개역표준성서, 새제임스왕역

이탈리아어: 새디오다티역

프랑스어: 현대프랑스어성서

(2) 시스트럼으로 번역한 성서들

영어: 새미국성서, 새예루살렘성서

이탈리아어: 새성경 상과울로본

프랑스어: 예루살렘성서, 공동번역

(3) 트라이앵글로 번역한 성서들

독일어: 개정 엘버펠더역, 술라흐터역

프랑스어: 새제네바역

이탈리아어: 새개역성서

(4) 심벌즈로 번역한 성서들

독일어: 개정 루터역, 공동번역

(5) 류트로 번역한 성서들

영어: 새국제역

(6) 그 외 독일어 루터역은 현악기로 번역(Geige; 바이올린)

개역과 개역개정판에는 ‘경쇠(磬)’로,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는 ‘팽과

리'로 번역되었다.

2.10. 다니엘서의 악기들

단3:5, 7, 10, 1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단3:5)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악기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악기가 아닌 바빌론의 악기들이다.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5세기 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빌론 시대이지만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2세기 경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때이다. 또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악기 이름이 나오는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악기들은 바빌론의 악기이지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악기 이름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스어가 섞여 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여섯 가지 악기 이름이 차례로 반복되어 나온다. 5절과 10, 15절에는 여섯 가지 이름이 순서대로 반복되고 7절에서는 마지막 이름이 생략되었다. 유럽의 번역 성경 중에는 7절에 생략된 마지막 이름을 보충해서 번역한 것도 있다.²⁹⁾

(1) 케렌(קֵרֶן)

케렌은 동물의 뿔을 가리키는 말로 수6:5에서 악기 이름으로 한 번 쓰였는데 쇼파르가 이에 해당한다. 개역과 공동번역에는 나팔로 번역되었다.

(2) 마쉬로키(מַשְׁרוֹקִי)

‘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관악기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 명칭이 이스라엘에서도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악기의 형태는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더블오보에로 추정할 수 있다. 개역과 공동번역에 피리로 번역되었다.

(3) 키타로스(קִיטָרוֹס)

29) 새미국표준성서, 미국개역표준성서, 새개역표준성서, 새미국성서, 새예루살렘성서, 독일어 공동번역, 프랑스어 예루살렘성서.

그리스어 *kithara*에서 유래한 말로써 리라를 가리킨다. 키타로스는 리라의 일종으로 그리스 시대에는 키타로스와 리라라는 명칭이 구분되어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거의 구분하지 않고 리라로 통칭한다. 개역에는 수금, 공동번역에는 거문고로 번역되었다.

(4) 사쁘카(סַבְּכָה)

그리스어 *sambyke*에서 유래한 말로 알려져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sambyke*로 번역했고 불가타에서는 라틴어 형식인 *sambuca*로 번역하였다. *sambyke*는 삼각틀에 네 줄로 된 고음의 하프인 것으로 평가된다.³⁰⁾ Sachs는 하프의 일종으로 생각했고³¹⁾ Kolari와 Bayer³²⁾는 리라로 여겼다. 바빌론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리라로 인정되지만 기록된 시기에 쓰인 용어는 바빌론에서 쓰던 악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악기를 이르는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용어 자체만 논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역에서는 삼현금으로 번역했지만 유럽어 성경 중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성경은 미국개역표준성서(*The Revised Standard Version*)과 새미국개역표준성서가 있다. 여기에서는 *trigon*이라고 표현했는데 *trigon*을 번역한다면 삼현금(三絃琴)이 아니라 삼각금(三角琴)에 해당된다. 그 외의 유럽 성서들은 리라, 하프, 쥘터 등으로 번역했다. 공동번역에서는 사현금으로 번역했다.

(5) 페싼테린(פְּסַלְתֵּרִין)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psalterion*에서 유래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하프나 리라로 혹은 쥘터로 평가한다.³³⁾ Sendrey는 고대 근동에서 널리 쓰였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네벨로 부르던 리라의 일종으로 평가하고 있다.³⁴⁾ 개역에는 양금, 공동번역에는 칠현금으로 번역되었다.

(6) 숨포네야(סוּפּוֹנְיָה)

Sachs³⁵⁾와 Kolari³⁶⁾는 악기 이름이 아닌 ‘전체 앙상블’을 가리키는 말로

30) Sendrey, 277쪽.

31) Curt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1940, 83쪽.

32) MGG 2판 Sachteil1, 1530쪽.

33) MGG 2판 Sachteil1, 1529쪽.

34) Sendrey, 277쪽.

35) Curt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1940, 84쪽.

고증하였지만³⁷⁾ 유럽의 성경에는 관악기인 백파이프, 파이프를 비롯하여 현악기인 류트, 들시며, 타악기인 드럼 등 매우 혼란스럽게 번역하고 있다. 새 제임스왕역에서는 ‘전체 앙상블’을 나타내는 ‘in symphony’로 번역하였다. 개역에는 생황, 공동번역에는 통수로 번역되었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악기들은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으로 번역하였고, 공동번역에서는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은 공동번역의 예를 따르고 있지만, 여섯 번째 악기의 이름을 풍수로 표현했는데 이는 통소의 오타로 보인다. 사현금과 칠현금은 만들어낸 용어이고 통수의 표준어는 통소이다

3. 우리말 성경에서 구약의 악기 명칭 번역에 대한 재고

개역의 나타난 악기 명칭의 문제점은 수금과 같이 임의로 만들어낸 추상적 명칭이 자주 등장하고 나팔과 같이 표준어가 아닌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선 거론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구약에 나타난 악기의 모양과 특성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공동번역은 개역과는 다른 문체로 번역을 했지만 악기 이름에서는 문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개역보다는 더 구체적인 악기 이름을 사용했지만, 표준어가 아닌 용어(소구, 통수, 나팔 등)를 더 많이 사용했고 한 가지 악기를 통일감 없이 번역하는 문제가 개역보다 더 많아졌다.

개역개정판과 표준새번역은 각기 개역과 공동번역의 예를 따랐을 뿐 새로운 변화는 보여주지 못했다.

3.1. 킨노르와 네벨

킨노르와 네벨은 개역에서는 수금과 비파 공동번역에서는 비파와 거문고 등으로 번역되었다. 비파와 거문고가 현악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금은 악기 자체가 존재했던 적이 없는 추상적인 명칭이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는 수금이 하프르 설명되어 있지만 이는 개역의 오류가 국어사전에 반영된 결과이다. 비파³⁸⁾는 1900년대 초까지 사용되었던 국악기의 일종이고 거문고는

36) Kolari, 82쪽.

37) Sendrey, 304쪽.

38) 비파는 1910년 원구와 사직 등의 제의와 궁중 연례악이 폐지되면서 연주되지 않아서 주법이 상실되었다.(장사훈, 국악총론, 세광출판사, 214쪽) 90년대 들어서 다시 복원하여 연주하고 있지만 연주자가 매우 적다.

지금도 널리 쓰이는 악기다. 비파는 류트³⁹⁾에 해당하는 악기이고 거문고는 찌터⁴⁰⁾에 해당한다.

킨노르와 네벨에 해당하는 악기를 우리말에서 찾기가 어렵다. 이 악기에 해당하는 리라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악기로 하프의 일종인 공후라는 악기가 있었지만 문헌에만 나올 뿐, 고려 이후에는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없다.⁴¹⁾ 실체가 없는 수금과 잊혀진 악기인 비파 대신에 구체적인 이름을 찾는다면 가야금과 거문고를 들 수 있다.

3.2. 우가브와 할릴

이 두 악기의 구조학적 명칭은 플루트 또는 오보에(혹은 더블오보에)에 해당한다. 개역에서는 통소, 저, 피리 등 세 가지 이름을 사용했고 공동번역에서는 피리와 통소를 사용했다. 통소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사용되는 관악기이고 피리는 널리 사용되는 관악기이다. 저는 대금의 속칭이다. 통소와 피리를 사용한다면 우가브와 할릴에 적절히 대응시켜 사용해야 하는데, 통소보다 피리가 더 일반적인 악기인 만큼 할릴에 피리를 대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3.3. 하초츠라와 쇼파르

금속으로 만드는 하초츠라는 트럼펫에 해당되고 뿔로 만드는 쇼파르는 호른에 속한다. 개역에는 나팔, 뿔나팔, 양각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나팔이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나팔은 나발의 사투리였지만 오늘날에는 서양의 금관악기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하초츠라와 쇼파르와 같은 악기를 보통 나발이라고 하는데, 나발은 통용되고 있는 국악기의 명칭이다. 좀더 명확히 분류하면 하초츠라는 나발과 매우 유사하고 쇼파르는 각(角), 호각(號角), 대각(大角) 등으로 바꿀 수 있다. 하초츠라를 나발로 번역하는 것은 자명하고 쇼파르는 각 혹은 호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9) 류트는 울림통과 울림통에 연결된 운지판을 질러 현을 맨 악기로서, 안고서 도구나 손가락으로 탄다.

40) 찌터(zither)는 울림통 위에 여러 줄의 현을 매고 무릎이나 탁자에 놓고 연주한다.

41) 장사훈, 국악총론, 241쪽.

3.4. 토프

토프는 작은북 즉 소고(小鼓)에 해당한다. 개역에서는 소고로 공동번역에서는 소구로 번역했다. 소구의 표준어는 소고이다.

3.5. 메칠타임, 첼첼림

메칠타임과 첼첼림은 심벌즈에 해당하는 악기이다. 개역에서는 제금으로, 공동번역에서는 바라, 자바라로 번역하였다. 제금(提金)과 바라, 자바라는 향발 등과 더불어 심벌즈에 해당하는 악기인데 이 중 바라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다.

국한문 혼용 성경에서는 제금(提金)의 한자가 제금(提琴)⁴²으로 잘못 쓰여서 제금이 타악기가 아닌 현악기로 오해되고 있다.

3.6. 파아몬

파아몬은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옷에 다는 장신구 방울로 나온다. 개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방울, 금방울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방울보다는 작은 종에 가깝다. 방울로 번역할 수 있지만 작은 종이나 요령 등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다.

3.7. 메나아님

메나아님은 흔들어 소리 내는 악기로 개역에서는 양금, 공동번역에서는 땡땡이로 번역되었다. 양금은 덜시머(dulcimer)에 해당되는 악기로 울림판 위에 금속 줄을 매고 채로 치는 악기인데 메나아님과 거리가 멀다. 딸랑이나 요령 등이 메나아님에 해당된다.

3.8. 샬리쉬

샬리쉬가 가리키는 악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어 성경들에서는 악기들, 시스트럼(요령, 딸랑이), 트라이앵글, 심벌즈(바라, 향발)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에서는 경쇠(磬)로 공동번역

42) 제금(提琴)이란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악기 이름으로 쓰인 적이 없다. 장사훈의 국악대사전에는 중국의 얼후나 우리나라의 해금에 해당하는 악기로 설명되어 있다.

에서는 팽과리로 번역되었다.

3.9. 다니엘서의 악기들; 케렌, 마쉬로키, 키타로스, 사쁘카, 페싼테린, 숨포네야

이스라엘의 악기가 아닌 바빌론의 악기가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어 악기들은 바빌론 시대와 시기적으로 다른 헬레니즘 시대의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크다. 이스라엘의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된 명칭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개역과 공동번역을 보면 분명한 기준이 없이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용어와 새로운 용어를 섞어 쓰고 있다.

다니엘서의 악기들을 구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명칭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여섯 번째의 숨포네야만 제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케렌은 쇼파르와 상응하는 명칭을 쓰고, 현악기인 키타로스와 사쁘카는 킨노르와 네벨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마쉬로키는 우가브와 할릴 중 할릴에 상응하는 악기를 쓰면 될 것이다. 숨포네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명확한 명칭을 찾기 어렵다. 불가타역과 새제임스왕역의 예에 따라 ‘모든 악기들 혹은 관현악’으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번역들의 예에 따라 임의로 악기를 선택해서 번역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히브리어 구약성서에 나오는 악기들의 구조적 특징과 고대어와 유럽어 성서에 번역된 용어, 그리고 한국어 성서에 번역된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고대어 번역 성서에서는 악기 이름에서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현대의 번역 성서에서는 점차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악기의 구조적 특징까지 감안해서 정확히 번역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문제 외에 악기 이름의 선택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성서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어든 한국어든 언어가 한 사회의 문화와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악기 이름을 번역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악기 이름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만들어 내어 채워 넣는 일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성서

(1) 한국어 성서

개역한글판, 개역간이국한문판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2) 원어 성서와 고대역

Biblia Hebraica Stuttgartentia, edited by K. Elliger and W. Rudolph of the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Fourth Corrected Edition, 1966/1977/1983/1990.

LXX Septuaginta, edited by Alfred Rahlfs,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35.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edited by R. Weber/B. Fischer/J. Gribomont, H.F.D. Sparks/W. Thiele,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69/1975/1983.

(3) 영어 성서

제임스왕역 *The King James Versions*, 1611.

미국 표준역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미국 개역 표준 성서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새 영어 성서 *The New English Bible*, 1970.

새 미국 표준 성서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95.

새 제임스왕역 *The New King James Version*, 1982.

새 국제역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4.

새 예루살렘 성서 *The New Jerusalem Bible*, 1985.

개역 영어 성서 *The Revised English Bible*, 1989.

새 개역 표준 성서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새 미국 성서 *The New American Bible*, 1991.

(4) 독일어 성서

구 엘버펠더역 *Unrevidierte Elberfelder*, 1905.

슐라흐터역 *German Schlachter Version*, 1951.

공동번역 *Die Bibel Einheitsübersetzung*, 1980.

개정 루터역 *Revidierte Lutherbibel*, 1984.

개정 엘버펠더역 *Revidierte Elberfelder*, 1993.

(5) 프랑스어 성서

루이 세공역 *French Louis Segond*, 1910.

예루살렘 성서 *La Bible de Jérusalem*, 1973.

새 제네바역 *Nouvelle Edition Geneve*, 1979.

공동번역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 1988.

현대 프랑스어 성서 *French Bible en français courante*, 1997.

(6) 이탈리아어 성서

새 디오다티역 *La Nuova Diodati*, 1991.

새 개역 성서 *La Sacra Biblia Nuova Riveduta*, 1994.

새 성경 상파올로본 *San Paolo Edizion*, 1995.

2. 성서 외 참고 문헌

MGG 2판 :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edited by Ludwig Finscher, Bärenreiter, Kassel, 1994.

MGG 1판 :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edited by Friedrich Blume, Bärenreiter, Kassel, 1958.

Grove 2판 :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ited by Stanley Sadie, Macmilan Publishers Limited, London, 1980.

Grove 3판 :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ited by Stanley Sadie, executive editor John Tyrrell, Macmilan Publishers Limited, London, 2001.

Alfred Sendrey, *Musik in Alt-Israel*, Deutscher Verlag für Musik, Leipzig, 1970.

Alfred Sendrey, *Music in Ancient Israel*, Vision, New York, 1969.

Antonius H. J.Gunneweg, 문희석 옮김, 이스라엘의 역사, 한국신학연구소, 1996.

Bathja Bayer, *The Material Relics of Music in Ancient Israel and its Environs*, Tel-Aviv, 1963.

Carl Engel, *The Music of the Ancient Nations*, London, 1964.

Curt Sachs, *Geist und Werden der Musikinstrumente*, Frits A. M. Knuf, 1965.

Curt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1940.

Emanuel Tov, *Der Text der Hebräischen Bibel*,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Berlin/Köln, 1992.

Eric, Werner, *Die Musik im alten Israel*, from *Neues Handbuch der Musikwissenschaft Bd.1*, edited by Carl Dahlhaus; Laaber-Verlag, 1989.

Hans Renner, *Geschite der Musik*,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65.

Julius Willhausen, *Music of the Ancient Hebrew*, from *The Book of Psalms*, New York, 1898.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1995.

Ronald E. Clements, 문동학/강성렬 옮김, 구약성서 해석사, 나눔사, 1976.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두란노, 1996.

장사훈, 최신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5.

장사훈, 증보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6.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5.

<Abstract>

A Survey of Musical Instruments in the Old Testament and Their Translation in the Korean Bible

Seong-sil Yi

Musical instruments in the Old Testament have not been known in detail for very long. But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y gradually became better known, with the development of archaeological evidence in ancient Israel and other Middle East areas. The efforts of many musicologists has also given us more concrete information about them.

In my work I surveyed the systematic shapes of the instruments with the help of documents among the early translations of the Bible, especially *Septuaginta*, *Vulgate*, *Targum* and *Peshitta*, along with archaeological evidence.

I also reviewed the names of the instruments that appeared in European languages (English, German, French and Italian) in the central Middle Ages and tried to point out problems with their translation in Korean versions (*The Korea Revised Version* 1911/38, *Common Translation* 1977,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1977,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98),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solution toward a better translation of the Korean Bible.